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16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국제평화협력 담당관실	담 당 자	• 아시아팀장 • 담당자	명창준 ☎440-3201 이다혜 ☎440-3205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-우즈벡 페르가나주, 우호도시 협정 체결

- 이행숙 시 정무부시장, 페르가나 주지사와 교류협력 확대 방안 논의 -
 - 무역, 투자, 환경, 문화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성화 기대 -

인천시가 한-우즈벡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페르가나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현지시간으로 16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를 직접 방문해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 부시장의 이번 출장은 한-우 수교 30주년 및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정착 85주년을 기념해 페르가나주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. 보자로브 하이룰라(Bozorov Hayrulla) 페르가나주지사는 지난 10월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천-페르가나 간 우호결연 체결 등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.

이날 체결식에서 이행숙 부시장과 보자로브 하이롤라 부지사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, 양 도시는 무역, 투자, 과학, 교육,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우수정책을 공유하기로 했다.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농업·공업도시인 페르가나주와 인천 기업간 경제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 교류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.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공식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행숙 부시장은 “페르가나주는 러시아를 제외한 독립국가연합(CIS) 지역에서 인천시가 우호협력 다리를 놓는 첫 번째 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며 “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페르가나 국제공항의 직항노선도 신속히 개설되고 그로 인해 양도시의 경제협력과 기업진출 활성화 및 문화, 체육 등의 교류도 더욱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.”고 말했다.

* 독립국가연합 : 1991년 소련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.

**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: 러시아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, 몰도바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타지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

이 부시장은 17일엔 타슈켄트로 이동해 우즈베키스탄 내 한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지지를 제안하는 등 인천시가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.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18만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종료(15시 30분)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